

韓國看護에 對한 소고

— 윤 혜 영 —



필자는 대구동산 기독교병원 간호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결혼전 이름은 방혜영이다.

제 1회 전국간호학교 학술연구발표회 회의장에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란 표어를 내세웠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학술의 연마가 있어야한다는 취지에서 학술연구발표회를 추진했을 줄 알며 필자는 그 취지에 합창하듯 한국간호의 학술적인 기반을 살펴보려고 한다.

직업에는 여러가지가 있겠고 간단 명료한 표현법이 없어 모든 직업을 “직업”이라고 한마디로 몰아버린다면 직업이 주는 어감때문에 간호정신에 상처를 받는감을 면할수 없으나 직업을 잡, 아큐케이션, 보케이션, 푸로펙션 등으로 표현할수 있는 영어국가에서도 여러학자들이 푸로펙션을 정의하기 위하여 고심연구하고 있느니만큼 직업이 포함하는 뜻이 단순하지 않은것은 짐작할수 있겠다.

McDlothlin은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들어서 푸로펙션을 설명했다. 첫째로 전문적 직업은 인류에게 뜻있고 요긴한 문제나 사전을 취급한다고 하였으며 둘째로 전문적직업은 인류의 유익을 도모하며 도의적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였다. 셋째로 그는 말하기를 전문적인 직업은 배운 직업이라고 하였고 넷째로 배운 직업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때마다 직업인의 판단력을 요구하여 직업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것이 전문직업이라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네가지 조건에 비추

어서 미국간호를 평가하여 말하기를 미국간호는 배운 직업이지 배운 직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는 어 말하기를 간호직업은 아직도 죽자와 철인들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간호도 McDothlin의 첫째와 둘째 조건엔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전문직업으로서의 발걸음을 뚫어나왔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환자를 도와주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일이 인류에게 얼마나 긴요한 일이며 뜻있는 일이란 것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고 인류의 유익을 도모하며 도의적인 기준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국간호는 오히려 우수한 자리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기계화하고 상업화한 미국의 간호가 많은 간호원들을 낙담하게 하는데 비해서 한국간호는 아직도 약한자를 간호해준다는 어린 처녀의 꿈을 깨트려주지는 않았다고 본다. 한국간호가 아직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것은 오히려 한국간호가 전통적인 희생정신만을 고집하였던때 있지 않았나도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서 배운직업이란 것과 직업적행동에 필요한 판단력과 직업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말했는데 직업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독립된 지위를 지니지 못할 때는 그 직업인의 행동이 대개 종속적인 것이 되고 직업적 행동에 대한 판

단력도 행동에 대한 책임도 필요없게 되는 것임으로 전문직업은 배운직업이란 한마디로 종합해서 생각해보기로한다.

McDothlin이 미국간호를 평가할 때 이 집에 주저했다는 사실은 간호직업에 대한 경멸적 비평이 아니였고 간호사업을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의사, 변호사, 목사 등등의 유태가 깊은 전문직업인의 행열에 세우려고 애쓰는 미간호제를 위한 냉정한 비평이며 권고였다. 지금은 우리 한국간호도 냉철하게 우리의 실력을 검토하고 전문직업으로서의 위치를 찾는 동시에 전문직업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줄 안다.

일반적으로 “간호가 배운 직업이다”한편 그대로 받아 드리는이가 많은줄 안다. 사실 삼년이란 간호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졸업장을 받아드리는 간호원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일이겠다. 그러나 삼년이란 교육기관이 간호원들이 배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경험과 체힘에 의한 재주를 배웠으며 학생이라는것 보다는 오히려 전습생의 입장을 면하지 못했던것을 기억한다. 비단 과거의 졸업생뿐 아니고 오늘날 학문을 닦고 있는 간호학생들도 교재나 연구자료의 희귀한 가운데서라도 삼년 내지 사년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한국간호를 전혀 전문적직

업으로서의 위치에서 제거해 버리자는 것이 필자의 동기는 아니다. 간호가 하나의 학문으로 머리를 드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도 최근의 일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근년에 이루어진 간호교육 수준향상과 의료법 재정을 증식한 여러가지 변동”이 급제수준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또한 간호학 서적의 편역, Workshop, 연구발표회 등의 최근의 동향은 비록 그들이 초보적이고 미숙한점이 없지않다 할지라도 간호직업이 배우는 직업이란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날 간호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들어올뿐 아니라 대학과정을 밟는 학생으로 말하면 똑 같은 조건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만큼 일단 교문을 나선후의 증지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실력과 사명감이 다른 어느 전문직업인에 못지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간호의 급선무는 간호원의 실력배양 간호학의 내용확보라 하겠다. 제33회 대한간호협회 총회에서 이영복선생님이 이점을 명료하게 말씀하시었다. 지식적, 기술적, 교양적, 실력양성이 한국간호의 급선무라고 호소하신 한 지도자를 비롯하여 거기에 호응하는 간호원들은 우선 한국간호를 국내외적으로 당당한 직업으로서 내세우려는 선구자들이라고 하겠다.

이영복선생님의 말씀인 지식, 기술, 교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간호지식이란 무엇인가? 1964년도 임상간호연구논문 심사위원들의 논문평을 간추려서 대한간호 편집인의 말을 보면 “연구논문이 간호에 중점을 둔것 같지가 않다”고 하였다. 필자는 몇몇권의 대한간호지를 통독하다싶이 하면서 이 점에 동감 하여왔고 간호지에 간호의 내용이 심히 결핍함을 애처롭게 여겨 왔었다. 필자는 오래전에 간호고등기술 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오늘날까지도 학생 때 들던 이론과 실습이 병행하지 않는다는 불평을 종종 들고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불평의 근원이 “이론”을 잘못 해석하는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지식이나 이론이 즉 처치법이 아니란 것은 늘 명심해야 할 점인줄 알며 그러므로 처치법은 때와 장소와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수 있으며 지식과 이론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종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은 본래 의학에 심히 의존되어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간호원들의 역할이 의사의 치료법과 의사의 태도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지만 의사의 일의 일부분을 간호원들에게 맡겨맡겼다고는 할 수 없다. 간호원들에게는 간호원들에게 특유한 역할이 있는것이다.

Johnson은 간호과학(科學)의 성질에 대해서 논하기를 간호과학에 대한 내용은 환자에게 흔히 있는 문제

중 그중 중요시되고 또 간호와 직접 관계있는 문제를 골라내므로 채울수 있다고 말했고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서 뽑아낸 지식을 새롭게 꾸며낸 것이 간호과학이라고 말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과학의 내용은 해부, 생리, 심리, 사회학 등의 기초과학과 의학, 약리학 등의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간호원 자신이 연구 연마한 특유한 학설을 포함해야한다.

흔히 간호를 정의하기를 과학이요 예술이라한다. 간호원들은 기술치치법에 능숙함과 행동에 재빠른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기술은 경험과 훈련에 따라서 는다고 말할수도 있겠으며 이런 원칙에서 과거의 간호교육이 병실을 주로 하여 되어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론을 중요시하는 대학의 교육을 신통치 않게 여기는 간호지도자나 일반사회인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반듯이 손으로만 하는것은 아닌줄 안다. 지식을 이용 할줄 아는 기술은 손수 행하므로도 배울수 있거니와 앉아서 생각하므로도 배울수 있는 것이다. 그러던 기술은 실습에서 오는 자연적인 산물이 라고는 할수 없다. 첫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이만 못하다는 옛말을 따르는 우리이며 행하므로써 배운다는 것을 믿고있는 우리이나 자칫하면 생각하는것 역시 행함이란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이기도 하다. 맹목적인 행함이나 지식이 없는 행함에 잘못이

들어나면 부끄러하게 되기 쉬운 것이다. 과거 대한민국 간호원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 왔으나 오늘날의 간호를 하나의 예술화 하려던 간호원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기술을 기르게 할 것이며 지식을 응용 활용할 줄 아는 기술을 길러야하며 간호과학의 이론과 간호원들의 개성을 등쳐서 간호를 하나의 창작품 즉 예술품으로 나타낼줄아는 간호기술훈을 길러야 할줄안다.

셋째로 교양에 대해서 몇마디 더 하겠다. 전문직업과 다른 직업의 차이점의 하나는 전문직업이 그 직업인들에게 여러가지 희생을 요구하며 여러가지 제한과 여러면의 통제를 더하는데 있다. 대개 이 제한은 그 직업인의 조직체 즉 간호협회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있으므로 팔미암아 전문직업인은 직업으로서의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직업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원들의 특유한 교양을 지켜 나가려면 흩어진 직업인들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며 비단 도의적인 통제만 아니라 각 간호원의 질적인 통제도 할 수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간호가 어떻게 지식, 기술, 교양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간호원들의 실력을 배양할수 있을것인가? 이미 한두걸음 그 방향으로 내디딘 흔적이 보이는 하나 수년간

느껴오던 일기기에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고 싶다.

첫째로 한국간호는 좀 더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사고 태세를 취해야 하며, 둘째로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의 사상과 이론을 표현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과같이 하는것이 쉽고 편한 일기기에 우리는 학생들의 탐구적인 태도를 양성할 기회를 열어주지 못하였고 부족한 지식을 들어내기 두려워서 들고 따지는 학생을 꺼리지 않았는지? 과거 간호학교들이 각종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 들였어도 그들의 숨은 재주와 지혜를 충분히 이용하고 길러내지 못한것은 지도자들이 굳이 전통적인 간호원의 태도를 고집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특출한 사상가를 산출할수 없으니 졸업하면 기계적인 직장생활에 매이고 마는것도 그들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하고싶다.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단 교문을 나서면 공부하기 쉬운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독서와 학습으로 직업적 상식과 산지식을 찾는이가 졸업후 몇명이나 있을까? 이영복선생님께서 간호원의 면허를 받았다함은 최저의 자격을 규정지워 주는것이 "최고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셨다. 어떤이는 졸업후 했수가 지나면 자연히 권위자가 되는줄로 아는 이도 있는데 필자는 한

마디 더하여 경월이나 경력도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다.

학구적인 태도와 비평적인 사고 기술은 학생때 부터 길러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간호의 장래가 간호교육자의 태도에 달렸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는 학생들만을 바라보고 있을수도 없다. 간호교육자와 간호지도자들은 긴급히 그들의 태도를 검토하고 가장 생산적인 교육방법과 인재활용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 할 것이다. 각 직장파 사무실에서 간호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재래의 틀에 박힌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끔 힘을 빌려 주어야 한다. 간호원들의 지적향상과 발전을 위한 실심한 고려와 계획이 한국 각처에 흩어진 직장마다 것들기 바란다.

또한 간호원들을 전체적으로 지도할수있는 협회가 간호원의 지적향상을 위하여 할수있는 일이 작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에 흩어진 교육자와 간호행정자들을 한 산하에 모아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도록 하는것은 간호협회의 책임이다.

미국인의 교실에 앉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수 있는지를 관찰할수있다. 우리의 심히 부족한점이 의견발표를 하지않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 귀향선생님의 "제33회 정기총회

를 끝내고”를 읽어보면 역시 회의 장소에서 언쟁과 부조화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민족성에서 나온다고 옮기전에 먼저 남의 의견을 존중할줄 알며 동시에 자기의 의견을 냉정히 논리적으로 발표할줄 아는 수완을 길러야한다.

우리의 앞길에 발전이 있으려면 여러가지 사상과 대립적인 의견이 있어야하며 감정적인 편견을 떠나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참다운 전진이 있는줄 안다. 필자의 의견에는 넓은 독서와 문견을 통하여 다종다양의 발전상을 일견 통찰할수 있을때 위에 말한 용량이 생기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넓리 읽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적의 부족을 애통하며 외국서적이용의 불가능을 고집할 때가 아니고 생각한다. 이왕에 국내에 퍼진 각 학계의 서적과 학회지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며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간호학생들의 교재를 채택해 쓸 책임이 간호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간호지들이 좋은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것을 본다. 우리도 이제 통권20호의 대한간호를 발간하고 있으니만큼 회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 잡지를 애독하도록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기사와 간호원들의 요구에 응할수 있는 내용의 논설등을 설도록하여 좀 더 유용하게 이 잡

지를 사용할수 있을것 같다.

저자가 없는곳에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과제로 따라오는 것은 간호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서로 나뉘가며 읽을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독서, 내용보고, 종합간호임상연구, 국내 간호현황연구, 외래사상과 신발전점토 등등을 프린트 할수있게끔 문필로 표현할줄 알아야한다는 말이다. 외국서적을 읽는사람이나 국어서적을 탐독하는 사람이나 서로 연구한 결과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열므로써 실력배양에 이바지 할수 있겠다.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증가됨에 따라 수 많은 연구논문은 많은 간호원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미국서는 *Nursing Research* 란 잡지가 1952년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대한간호도 머지않은 장래에 학회지로써 출두할 때가 오리라고 믿는다.

비단 간단한 논설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많은 간호서적을 내야하며 많은 저자를 길러내야 한다. 비록 한두분의 힘으로나마 열몇권의 간호서적이 편역되어 나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나 보다 많은 저자가 요구되고 있다.

인간생활이 나날이 변하고 간호의 이념과 업무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대한간호는 과거에 대한 애착으로 고집할 수도